복음의 황무지인 일본에서도 제자훈련의 꽃은 피어난다

– 이수구 목사의 일본 선교 이야기

복음의 황무지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 많은 선교사가 들어가 기도와 사역의 헌신을 불태웠지만, 그 노력만큼 큰 결실을 보지 못한 곳. 바로 일본이다. 국제제자훈련원은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1989년부터 사역을 시작했다. 일본 목회자들에게 제자훈련을 소개함으로써 '건강한 교회를 세우도록 돕는다'는 전략을 가지고, 일본 제자훈련지도자 세미나(이하 CAL세미나)를 시작했다. 그리고 올 6월까지 약 550여 명의 일본 목회자들이 수료할 정도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그 결과 제자훈련을 접목한 교회 가운데, 일본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회로 인정받는 교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일본 목회자들에게 건강한 교회와 목회철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다.

이수구 목사

- 총회신학대학 졸업
- 합동신학대학원 졸업
- GMTC 선교사훈련
- 국제 OMF소속 선교사
- 前 혼텐그리스도교회 담임
- 現 삿포로 국제그리스도교회 담임

비슷한 기간에 한국 교회가 제자훈련을 통해 거둔 열매와 비교하면, 일본 교회가 거둔 열매는 너무나 적은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일본 교회는 교인 수가 전체 인구의 1%도 채 안 되는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일본 교회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고만 치부한다면, '제자훈련 목회철학은 성경적 목회철학'이라고 말하는 국제제자훈련원의 주장은 틀린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적 목회철학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의 달동네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도 접목이 가능해야 한다. 일본 교회에서 제자훈련의 열매가 적은 원인은 지역적 환경보다는 일본 교회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의 목회철학과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호에서 소개하는 삿포로 국제그리스도교회(이하 삿포로 국제교회) 현장 이야기는 일본 선교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제자훈련이 일본과 같은 목회 현장에서도 충분히 접목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인에 대해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는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선교사가 사역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삿포로 국제교회는 바로 제자훈련 목회철학을 가진 한국인 목회자와 일본인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합쳐 건강한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다.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일본에서 제자훈련을 통해 아름다운 복음의 꽃을 피우고 있는 이수구 목사와 그의 일본 선교 이야기를 들어보자.

제자훈련의 가능성을 확인한 혼텐그리스도교회 사역

삿포로 국제교회를 담임하는 이수구 목사는 OMF 소속으로 지난 1990년에 파송받은 선교사이다. 신학교 1학년까지 사랑의교회를 출석한 이수구 목사는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제자훈련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하겠다는 비전을 품었고, OMF는 이수구 목사에게 일본 삿포로 지역에 OMF가 세운 교회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이수구 목사가 파송을 받은 곳은 삿포로 외곽지역에 세워진, 10여 명이 출석하는 혼텐그리스도교회(이하 혼텐교회)였다. '선교지에 가면 제자훈련을 통해 건강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겠다' 고 결심한 이 목사. 하지만 처음 도착한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을 직접 목격한 뒤 그의 마음에는 '여기서도 제자훈련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생겼다.

물론 그 자신도 당장 제자훈련을 할 수 있을 만큼 일본어가 자유롭지 못했기에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보다도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아직 제자훈련을 감당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 게다가 성도들이 새로 부임한 낯선 한국인 담임목사에 대해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짜고짜 제자훈련을 하자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이수구 목사는 전통적인 목회 스타일로 첫 번째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 하지만, 소그룹으로 제자훈련을 실시해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계획은 포기했어도, 제자훈련에 대한 비전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으로 제자훈련 목회철학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다.

즉, 모든 메시지에 '훈련목회'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주일 및 수요 기도회의 설교 메시지는 물론, 구역 모임도 사랑의교회 다락방 교재를 사용하면서 모든 시간마다 훈련목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이야기했다.

이수구 목사는 혼텐교회에서 비록 제자훈련을 시행하지는 못했지만, 제자훈련 목회철학을 공유하며 일본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다가서는 마음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1기 일본 사역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 목사는 혼텐교회에서 4년간 사역하면서 오로지 제자훈련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데 집중했다. 놀라운 사실은 방법론적으로 보면 전혀 제자훈련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텐교회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사실 혼텐교회에서의 사역은 이수구 목사의 일본 사역 전체를 놓고 볼 때, 1기에 해당한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일본인들이 어떤 부분에 약하고 강한지 그리고 일본 성도와 교회를 알아갔다.

이 시기 동안 분명 완벽하지 못한 언어는 사역의 장애물이었지만, 그가 마음을 열고 그들의 곁에 진심으로 다가서려는 마음만은 언어가 아닌 '마음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전달되는 특유의 경험을 하게 됐다. 언어에 능숙하지 않았지만, 이 목사의 진심이 담긴 일본 성도를 향한 사랑과 헌신하는 모습을 몸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전달했던 것이다.

일본인은 세례 받는 것을 중시한다. 단지 받는 것 자체를 말이다. 여기에 이 목사는 세례 받은 이후,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를 일본 성도들에게 반문했다. 바로 예수 닮은 사람으로 바뀌져 나아가야 한다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성경공부 모임 시 귀납적으로 질문해 나갔던 것이다. 이때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게 됐고, 그들에게 미약하지만 예수의 제자로서 정체성이 생기게 됐다. 그러다보니 그들이 교회 중심 멤버가 되어 담임목사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줬다. 그 한 열매가 '전도'였다.

"대부분의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만 전도하고, 성도들은 전도를 하지 않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혼텐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12명 정도 됐을 때부터 성경공부를 시작했는데,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알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이 재미있데요. 그러더니 한 명씩 전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자 4년 만에 교회가 35명으로 성장했습니다."

혼텐교회가 이처럼 양적 성장을 이룬 것은 일본 교회의 상황을 보면, 실로 대단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 목사는 그보다 더 자신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 일이 있었다고 소개한다. 그것은 교회가 양적으로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숙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준 사건이었다.

교회가 성장하자 생각지도 못했던 고민이 생겼는데, 바로 예배드릴 공간이 비좁았던 것. 적당한 장소를 찾았지만, 교회 재정에 비해 너무나 비싼 가격에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이런 교회의 사정을 성도들과 나누고,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 사실 이 목사는 한국과 달리, 헌금하는 데 인색한 일본 성도들을 보면서 속이 상했다. 그래서 '과연 이들이 얼마나 헌금을 할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눈이 많이 오던 어느 날, 새벽기도에 오던 한 성도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상태가 좋지 않아 한 달 이상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큰 사고였고, 덕분에 그 성도는 큰 보험금을 타게 됐다. 그런데 그 성도가 이 목사에게 "하나님이 왜 교통사고를 나게 하셨는지 이해할 것 같다"며 보험금 전체를 헌금하겠다고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헌금에 동참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당초 필요했던 장소 구입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헌금되었다.

"처음에는 저도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적이 아니었어요. 성도들이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증거였죠. 오랫동안 제자훈련 목회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열매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얼마 후 그 지역의 신사(神祠)를 책임지는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던 한 노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소유로 된 115평의 땅을 교회에 헌금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 그 노인의 아들이 혼텐교회에 출석하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는 앞으로 예수를 믿을 것이고, 아버지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선포했다는 것이다.

이 목사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제자훈련 목회철학이 공유되니, 가족에게까지 자신의 믿음을 결단하는 일들이 생긴 것이다. 그때부터 그 지역 신사에는 제사장이 없어졌다. 왜냐하면 신사 제사장은 대물림을 하는 것이 전통인데, 제사장 역할을 하던 아버지가 아들을 따라 예수 믿기로 결정했고, 그 손자도 혼텐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기에 더 이상 제사장직을 맡길 자녀가 없어졌던 것.

이렇게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혼텐교회는 115평의 대지 위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이 목사는 예배당이 아름답게 건축되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 교회도 이처럼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고 한다. 비록 제자훈련을 실시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목회철학을 가지고 사역을 한 것만으로도 이처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 것이다.

목회철학이 분명한 목회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혼텐교회를 생각하면 지금도 이수구 목사에게 안타까움으로 남는 것이 있다. 4년간의 1기 사역을 마치고 새로운 사역지로 떠나면서 일본인 목회자에게 교회를 맡겼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자훈련 목회철학을 일관성 있게 메시지에 담아냈던 이수구 목사와 달리, 제자훈련 목회철학이 무엇인지 모르던 일본인 목회자에게 교회를 맡긴 것이 그 원인이었다.

이 목사를 통해 한 영혼에 대한 진심어린 사랑과 말씀, 훈련 목회를 접한 혼텐교회 성도들은 목회철학이 부재하고, 말씀과 사역의 헌신이 없는 후임자에게서 '영적 갈증'을 느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목사는 왜 혼텐교회를 떠났을까? 이수구 목사는 이렇게 대답한다.

"일단 교회가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곳에 사역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OMF에 좋은 목회자를 소개해 달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온 분이었는데, 인격은 좋았지만 목회철학이 없으니까 성도들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영적 필요에 대해 민감하게 느끼는데, 목회자는 그걸 모르고 사역하니 성도들이 힘들어했지요."

이 일을 통해 이 목사는 '리더십이 교체되어야 할 때는 반드시 스피릿(spirit)이 같은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일본에서 제자훈련 목회철학을 가진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보다 어려웠다. 이 목사는 일본 목회자들에게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가 만난 대부분의 일본 목회자들은 건강한 교회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목회철학'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다.

또한 목회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주일날 설교를 하고, 주보를 직접 만들고, 수요기도회 때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주 업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었다.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라는 사실에 대해 낯설어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목회란,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힘이 없는 거죠."

혼텐교회가 그 대표적인 경우였다. 그러나 목회철학이 분명하고,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목회자가 있을 때, 혼텐교회는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목회철학이 분명하지 않은 목회자가 뒤를 이으면서 혼텐교회도 여느 일본 교회와 다를 바 없이 정체된 교회로 되돌아갔다. 도대체 일본 목회자들은 왜 목

이 목사는 삿포로 국제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시작하기 위해 일본 성도들과 식사도 자주하고, 모임에도 따라다니며 친해지려고 노력했다. 또 교회 청소도 앞장서서 하는 섬김의 모습이 일본 성도들의 마음을 얻는 계기가 되어, 제자훈련을 시작할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을 마련했다.

회철학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이수구 목사는 이렇게 대답한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이런 목회철학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모습, 패턴에 의해 교회를 이끄는 모습밖에 본 것이 없었으니, 그것을 당연시 했던 겁니다. 지금 일본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건강한 교회와 목회철학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회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목회철학을 가진 목회자가 나와야 일본 교회는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도전할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훈련의 열매를 거둔 삿포로 국제교회 사역

혼텐교회에서의 1기 사역이 제자훈련의 '가능성'을 확인한 기간이었다면, 1996년부터 시작한 삿포로 국제교회에서의 사역은 제자훈련의 열매를 맛본 기간이었다. 삿포로 국제교회는 1984년에 OMF 본부에서 삿포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세운 교회이다. 사실 삿포로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우찌무라 간조와 같은 일본의 영적 지도자들이 배출된 고장이다. 그래서 삿포로 시내에는 100년이 넘는 교회들이 많다. 그 교회들은 건물도 크고, 지역적 기반도 튼튼해 처음 OMF가 삿포로 국제교회를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OMF 본부 리더들이 보는 시각은 달랐다. 100년 넘는 교회들은 많았지만, 그 교회들은 모두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교회들이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으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 OMF 본부 리더들은 이런 교회가 결코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삿포로 국제교회를 세우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수구 목사가 부임하기 전까지, 삿포로 국제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교회에 지나지 않았다. 교회가 보여줘야 할 사명과 본분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거의 대부분 다른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모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의 마음속에 삿포로 국제교회는 결코 '내 교회'가 아니었다. 이 목사는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성도들의 상태가 "바람만 불어도 교회를 떠날 것만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말한다.

이처럼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은 30명 미만의 성도들이 모인 전형적인 일본인 교회가 삿포로 국제교회였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삿포로 국제교회는 주일 낮 예배에 일본인 약 150명, 중국 유학생 40여 명, 그리고 한국인 교포 및 유학생들까지 포함하여 총 200여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로 성장했다.

1부 일본인 예배, 2부 영어 동시통역 예배, 3부 중국어 예배로 드려진다. 교인들도 젊은층, 지식인층, 의사, 판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고 헌신적으로 사역한다. 이런 성장은 순수 일본인들로 구성된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며, 더군다나 한국인 목회자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그렇다면 삿포로 국제교회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과 같은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이 목사의 일본인 성도들을 알아가기 위한 남모르는 노력이 있었다. 이 목사는 우선 교인들과 자주 식사하고, 삶 가운데 작고 의미있는 교제도 많이 가지면서 친해지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교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고, 토요일이든 공휴일이든 자기 시간을 비웠다. 일단 친해지면서 그들에게 영적 갈망과 제자훈련에 대한 소망을 일으키기 위함이었다.

이 목사는 만약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며 즐기는 시간이 있다면, 놀아도 신나게 놀도록 했다.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야구나 축구, 등산도 모두 쫓아다녔다. 패밀리캠프를 1박 2일로 갈때도 적극적으로 함께 어울려 식사 교제하며 친해지려 했다. 특히 일본인들은 자기 집을 잘 오픈 안 하는데, 이 목사가 먼저 집을 오픈하고, 식사를 대접하니까 자신들의 마음을 열고 윷놀이, 게임 등을 하며 이 목사와 허물없이 지내게 됐다.

이렇게 기본적인 관계가 형성되니 한국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다.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노인들이 낚시나 등산을 가면 자신은 좋아하지 않더라도 함께 따라다니며 그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였다. 그러니 이 목사에게 신뢰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에 이 목사의 몸으로 섬기는 리더십은 일본인들의 마음에 하나의 감동을 던져줬다. 일본인들 역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권위적이면서 말만 잘 하고 행동이 안 따르는 사람을 싫어한다. 그런데 이 목사의 경우, 교회의 온갖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화장실 청소, 계단 청소도 항상 먼저 하고, 짐이 있으면 직접 운반했다. 그러다보니 먼저 교회 스태프들이 영향을 받았다.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목회자의 모습은 정을 잘 안 주는 일본 교인들에게도 감동으로 전해진 것이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 목사는 제자훈련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예수처럼 닮아가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제자훈련에 거부감 주지 않는 접목이 중요하다

1996년 7월에 이 교회에 부임한 이 목사는 이런 설득작업 후 이듬해 4월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시작하기 전까지 성도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에 필요한 '기초 작업'을 진행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점검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진행한 것이 바로 '교회론'이었다.

"성도들 대부분이 다른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교회에 대해 바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었습니다."

'교회론'의 내용은 주로 이 목사 자신이 제자훈련을 통해 세우기 원하는 교회에 대한 소개와 그 비전을 나누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성도들이 어떤 몫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시했다. 이때 그냥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미리 설교 내용을 프린트해서 성도들이 메시지의 내용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리고 유인물을 모두 모으라고 했다.

그렇게 제자훈련의 기초 작업을 실시한 지 6개월이 지나자, 성도들의 눈빛이 빛나기 시작했다. 교회에 대해 뭔가 기대하는 눈치가 보이는 것이었다. 제자훈련을 빨리 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고, 아직 확신은 없지만 그렇다고 반대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어찌됐건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제자훈련을 하자는 쪽으로 모아졌다. 그 결과, 1997년 2월부터 제자훈련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30명 미만이 모이는 교회에서 23명이 제자훈련을 지원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물론 실수도 있었다. 이 목사는 제자훈련을 빨리 실시해 교인들이 변화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열매를 얻고 싶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결정을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부분을 알고 천천히 제자훈련을 진행하려 했지만, 마음이 점점 급해지고 빨리 훈련 지원자들을 선발하고 싶었다. 그래서 10월부터 제자훈련에 대한 동기부여를 시간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1년이 4월부터 시작하는데, 두 달 전부터는 아예 리더의 자질이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기도하면서 신청서도 돌리고 훈련에 들어올 것을 권유했다.

그런데 접촉을 시도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부담감을 표시했다. 그것도 상담 때는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던 이들이 뒤에서 이 목사의 그런 접촉이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것이다. 이 목사는 기대했던 이들의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정말 실망스러웠고, 그런 갈등에 힘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좀더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기수, 또 그해에도 지원하지 않으면 그 다음 기수로 지원하기를 기다리며 기도에 매달렸다. 어차피 한번 훈련이 진행되어 좋다는 소문이 나면, 저절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결국 제자훈련이 시작되고 한참 지나자 하나둘씩 훈련에 참여했다.

또 하나 삿포로 국제교회는 개척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전통 교회였던 혼텐교회보다 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새롭게 추진하고, 개혁하기가 더 어려웠던 것이다. 일본 성도들은 빠르게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영적으로 충만한 메시지를 전달 받길 원했고, 이 부분을 알아차린 뒤부터 이 목사는 메시지 준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메시지를 통해 그가 강조하는 부분을 녹여서 전달하려고 애썼다.

이런 기다림과 준비 외에도 이 목사가 제자훈련을 이

이 목사는 개인적인 허물까지도 오픈했다. 그러다보니 이 목사에 대한 교인들의 마음은 '혼네'와 '다테마에'가 같게 됐고, 오히려 100% 이상의 신뢰감을 보내준다. 이 목사의 인품이 동반한 제자훈련과 신뢰감을 전해주는 커뮤니케이션이 혼합되어 일본 성도들의 마음을 녹였던 것이다.

교회에서 성공적으로 일궈낸 것은 거부감 없는 제자훈련 접목이 전략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가령 삿포로 국제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이라는 명칭 대신 'GT 97'(Growing Together 97)이라는 이름으로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GT 97'이란 말은 '함께 성장하는 97년' 정도의 뜻을 담고 있다. 연도 수를 의미하는 97은 해마다 숫자가 바뀐다.

"일본 사람들에게 '훈련'을 말하면, 마치 자위대에서 훈련받는 듯한 생각을 먼저 가집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자훈련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 묻는데, 아마 이렇게 제자훈련에 방해가 될 만한 아주 작은 요소라도 제거하려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준비하면서 훈련에 대한 내용보다 교회론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제자훈련을 대신할 명칭을 찾았죠. 그렇게 해서 지은 이름이 바로 GT입니다. '함께 성장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세우자'라는 의미가 담긴 뜻이었습니다."

신뢰감을 주는 커뮤니케이션으로 다가서다

삿포로 국제교회 제1기 제자훈련은 주부들로 구성된 화요 아침반과 직장인들로 구성된 토요 오후반으로 나눠 진행됐다. 제자반이 끝나면 함께 식사를 했는데, 식사는 이수구 목사의 가정에서 준비했다. 훈련생들에게 처음부터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런 이 목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쨌든 제자훈련을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점점 서로를 알아가는 재미가 들었고, 이 목사가 보기에도 훈련생들이 점점 제자훈련 시간을 기다리며 즐거워하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렇게 기대 속에 진행된 제자훈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수료자는 모두 12명에 불과했다. 체계적인 훈련이나 신앙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모아 훈련하다보니 아무래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었다. 이 목사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지 못 하겠구나' 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목사는 그렇게 중간에 낙오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하자' 고 다독였다. 이는 혼텐교회에서 1기 사역 때의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이다. 일본인은 훈련에서 탈락하면 차가운 눈빛을 보낸다. 그렇기에 이 목사는 훈련에 탈락한 사람들을 더 잘 보살피고 축복하며 격려해 줬다.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이 목사의 모습은 훈련받는 훈련생들이나 탈락한 훈련생이나 일본인의 마음을 또 한번 얻는 계기가 됐다. 일본인은 속마음인 '혼네'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인 '다테마에'의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그것을 알아차리기가 힘들었다. 이 목사가 대화해서 이미 잘 파악했다고 확신한 훈련생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도 많았던 것이다.

이처럼 일본인들이 하는 말의 톤과 태도 등을 보고, 그들의 감정을 파악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약하면 일본에서 사역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 목사는 자신이 먼저 오픈 하는 적극적이고 솔직한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이 목사 자신이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있다' 고 드러내기 쉽지 않은 부분을 오픈하면, 성도들도 마음의 문을 열더라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 목사에 대한 이 교회 교인들의 마음은 '혼네'와 '다테마에'가 같고, 오히려 100% 이상의 신뢰감을 보내준다. 이 목사의 인품이 동반한 제자훈련과 신뢰감을 전해주는 커뮤니케이션이 혼합되어 일본 성도들의 마음을 녹였던 것이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끝까지 수료한 자매 9명, 형제 3명 등 총 12명은 이수구 목사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보석과도 같은 존재가 됐다. 이 12명으로 시작한 것이 순모임이었고, 이들이 교회 사역의 중심 멤버가 됐다. 그들은 제자훈련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이 목사에게 큰 힘을 실어 주었다.

"어떤 분은 돈이 아주 많아서 2층집을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알고 보니 부부가 서로 위층, 아래층 별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죠. 그런데 제자훈련하면서 눈물 흘리며 이런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부는 제자훈련 때문에 완전히 회복됐고,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으로 변했습니다."

삿포로 국제교회에서 이런 사례는 너무나 많다. 대학시절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쇼지 카츠히로씨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 교회에 찾아왔다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케이스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교회 모임에 참석했지요. 마침 대학 영어 강사가 삿포로 국제교회의 스태프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참 황당한 이유로 교회를 찾은 쇼지 씨. 하지만 그는 삿포로 국제교회를 출석하며 이 목사의 메시지와 헌신적으로 교인들을 사랑하는 모습에 감동하기 시작했다.

"교회의 약점을 찾기 위해 예배시간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성경공부에도 참석했는데, 매번 모임에 가서는 비판적인 자세로 사람들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설교와 인품을 느끼면서 '나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게만 느껴졌는지 몰라요. 하지만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저를 맡기며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쇼지 씨는 1998년에 이수구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고, 제자훈련을 통해 삿포로 국제교회의 스태프로 사역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 신학교를 졸업한 뒤, 현재 삿포로 국제교회의 교육부 전도사로 사역 중에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삿포로 국제교회에는 쇼지 전도사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저보다도 더 날카롭게 기독교를 비판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머리도 좋고 똑똑해 성경공부 할 때마다 맨 구석에서 비판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제자훈련하면서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 겁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동안 자신이 비판하던 모든 내용이 믿어진다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한테만 걸리면 여지없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이전에 변화되지 않았던 자신과 똑같았기 때문이죠. 복음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사람이 복음을 가장 확실하게 변증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수구 목사의 말에 의하면, 삿포로 국제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은 성도들 중에 목회자로 헌신한 사람이 5명이나 나왔다고 한다. 일본에 있는 대다수 신학교의 학생 수가 10명도 채 안되는 현실을 놓고 볼 때, 이는 참으로 대단한 열매가 아닐 수 없다. 어쨌든 이처럼 제자훈련을 통해 변화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회도 함께 변하기 시작했다.

제자훈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라

그러면, 그동안 일본 교회에 제자훈련이 소개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와 비교할 때 열매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수구 목사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현재 일본 교회에 소개된 제자훈련을 평가하자면, 그 속에 상당한 왜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일본 목회자들은 아직도 제자훈련이 뭔지 모르는 거 같아요. 첫째, 셀 사

이수구 목사의 이야기는
환경과 형편을 이유로 제자훈련을 못하고 있는
일본 교회 목회자들에게도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수구 목사의 일본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기다림, 그리고 헌신적인 사역은
일본과 같은 복음의 황무지에서도
제자훈련을 통해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역이나 G-12 등 다양한 사역 프로그램들이 일본 교회에도 소개되면서 사람들이 제자훈련도 그런 프로그램 중 하나라는 것, 교회 성장의 한 방법론으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즉, CAL세미나 때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줄로 알고, 교회가 무엇이며, 목회철학이 무엇인지, 제자훈련의 깊은 생리가 잘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그램으로만 적용하려 합니다. 그러니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둘째는 CAL세미나에 참석할 때는 제자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당황해합니다. 게다가 일본에 제자훈련 모델교회라도 있으면 따라하겠는데, 일본에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또 제자훈련을 시작하긴 하지만, 그것은 제자훈련이 아니라 그냥 성경공부 수준인 거죠. 귀납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귀납법으로 구성된 교재를 가지고 훈련을 하니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더구나 일본 교회는 현실적으로 작은 교회에 대한 낙담과 자신감 결여가 깊고, 다른 제자훈련 하는 교회와의 교류가 전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목사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제자훈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CAL세미나를 들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세미나 테이프를 듣든, 아니면 세미나에 다시 참석하든 제자훈련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구체적인 방법론의 숙지에 대해서는 '제자훈련 체험학교'와 같은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모델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이수구 목사. 그래서 그는 지난 10년간 삿포로 지역에서 함께 사역하는 '일본 목회자 부부 모임'을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갖고, 그 안에서 제자훈련 목회철학과 실제적인 노하우를 다른 일본 목회자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 결과, 그 모임에 참석하는 목회자들이 사역하는 교회는 삿포로 내에서도 매우 주목받는 교회들로 자라고 있다고 한다.

영적 재생산의 능력을 가진 교회로 변화되다

오늘날 삿포로 국제교회가 제자훈련을 통해 거둔 가장 큰 변화의 열매는 바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점이다. 사실 삿포로 지역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전도폭발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전도폭발을 실시하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었다. 이수구 목사는 전도폭발의 판권을 일본 목회자에게서 샀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받은 수료생들에게 '전도폭발'을 가르쳤다. 그렇게 훈련받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전도폭발 훈련까지 받자, 그야말로 전도의 일꾼들이 되었다. 그래서 2년 반 만에 이 교회는 성도 수만 60여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다.

"전도폭발도 그렇고, 교회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제자훈련 1기 수료생 12명의 힘이 아주 컸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중심을 잡아주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했어요."

교회 안에 제자훈련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목사는 교회가 함께 변화되는 것을 느꼈다고 말한다.

"목사가 아무리 전도를 강조해도 성도들은 그 중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선교지에서는 더욱 그렇지요. 그런데 지희 교회에서는 훈련받은 사람들이 전도에 힘을 쏟으니까, 다른 성도들도 전도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낍니다. 그게 아마 다른 일본 교회와 가장 다른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혼텐교회와 마찬가지로, 삿포로 국제교회의 성장은 단순한 양적 성장이 아니었다.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성도들의 신앙 수준도 깊어졌고, 그것은 교회에 대한 헌신으로 나타났다. 성도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해져, 약 3억 엔 정도 하는 지금의 예배당 건물을 단돈 5천만 엔에 구입했다. 중요한 사실은 그때까지 교회에서 갖고 있던 재정이 불과 250만 엔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께 건물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때, 그 건물의 주인이 은행 빚 5천만 엔을 갚지 못해 3억 엔짜리 집을 경매에 붙이게 됐다.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아무리 싼 값으로 구입하더라도 건물을 구입하려면 담보가 필요했다. 그때 성도들 중 5명이 자기 집을 담보로 내놓겠다고 했다.

마침 OMF 본부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성도들의 이런 헌신에 큰 감동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번도 일본인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원래 허드슨 테일러가 OMF를 조직하면서 '돈은 꿔주지도, 꾸지도 말라'는 정책을 세웠는데, OMF 삿포로 본부는 이례적으로 본부 차원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삿포로 국제교회의 건물 구입을 위해 헌금하기로 결정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 달 안에 1,500만 엔을 준비하는 일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미 헌신을 결단한 이들에게 그것은 결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한 달 만에 1천만 엔의 헌금이 모아진 것이다.

혼텐교회와 마찬가지로 삿포로 국제교회도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그것은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세운 교회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담임목사와 함께 동역하는 건강한 교회였다. 제자훈련을 통해 건강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겠다던 이 목사의 선교 전략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었다.

제자훈련은 확실한 선교 전략이다

사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일본은 영원한 정적이다. 더군다나 독도 문제로 인해 최근의 민족적 감정은 극에 달해 있는 듯하다. 이는 우리만의 사정이 아니다. 일본도 한국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나빠지고 있다. 심지어 혐한류라는 만화까지 나와 한국을 조롱할 정도이다.

하지만 이수구 목사와 삿포로 국제교회의 성도들 사이에는 그런 반한, 반일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국인 담임목사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사랑하는 일본인 성도들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제자훈련을 통해 이뤄진 신뢰감 때문이다.

이수구 목사는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머리를 숙여도 속으로는 우월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정직성이나 성실성, 도덕성 같은 면에서는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국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는 다른 민족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제 말에 잘 순종해 주고, 저와 마음을 맞춰서 함께 사역해주는 모습을 보면, 제가 참 축복받은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동안 한국 교회 선교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구체적인 전략이 없이 그저 한국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선교지에 이식하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수구 목사의 이야기는 환경과 형편을 이유로 제자훈련을 못하고 있는 일본 교회 목회자들에게도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수구 목사의 일본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기다림, 그리고 헌신적인 사역은 일본과 같은 복음의 황무지에서도 제자훈련을 통해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제자훈련 목회철학을 붙잡고, 황무지를 장미꽃으로 가득 채워 나가듯, 일본 교회에 복음의 꽃이 제자훈련으로 가득 피워나길 바란다.

〈박순종 목사〉